

中國의 철학적 전통과 李退溪의 가르침**

뷰로프 (V.G. Burov)*

李退溪가 그의 교리를 자국의 정신적 요소로만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것은 대체로 그가 중국 철학 전통을 독창적으로 재해석한 결과인 것이다. 중국 철학, 특히 孔子와 孟子에 정통해 있었던 데다가, 그는 宋代 철학의 창시자들, 특히 周敦頤·張載·朱熹 등에 대하여 최대의 존경을 표시하였다. 사실상 주희의 저서들은 그의 이론적 사색의 출발점이 되었고 항상 지니고 있는 휴대품이 되어 있었기에 그가 조선의 朱熹라고 불리어진 것은 당연했다. 朱熹 자신도 어느 정도는 周敦頤·張載·朱熹 형제가 창시한 노선을 완성한 것이었다. 태초의 혼돈에서 도덕적 범주에 이르기까지 세계발전에 관한 독창적인 개념을 제시하면서, 周敦頤는 이렇게 적고 있다. “無極이 곧 太極이다. 태극이 動하여 陽을 낳는다. 動이 極해지면 靜해지고 靜하여서 陰을 낳는다. 靜이 극해지면 動으로 되돌아간다. 이처럼 한번 動하고 한번 靜함이 서로의 근원이 되어 陰으로 갈리고 陽으로 갈린다. 이러한 動과 靜 안에서 兩儀가 생긴다. 陽의 변화와 陰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水·火·木·金·土의 五行이 생겨난다. 五行이 순조롭게 퍼져서 사계절이 운행한다. 그러나 五行은 하나의 음양일 뿐이며 음양은 하나의 태극일 뿐이다. 또한 태극은 본래 無極이다. 오행이 생성되면 각각 그 독특한 본성

* 러시아과학원 哲學研究所 선임연구원

** 원제: The Chinese Philosophical Tradition and Lee Toegye's Teaching.

퇴계학 연구원, 『퇴계학보』 제75·76호(1992년) 게재 논문

을 가지게 된다. 무극의 참된 본체와 二(兩儀, 즉 음양), 五(五行)의 精髓가 묘합하여 응결된다. 乾道는 男이 되고 坤道는 女가 된다. 二氣가 서로 감응되어 만물을 化生한다. 만물은 생생하여 변화가 끝이 없다. 그러나 오직 사람만이 빼어남을 얻어 가장 영특하다. 인간의 형체가 이미 생기며 정신은 지각을 계발시킨다. 五性이 감응하여 선악의 분별이 생기고 만물이 생겨난다……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互爲其根. 分陰分陽. 兩儀立焉. 陽變陰合. 而生水火木金土, 五氣順布, 四時行焉. 五行一陰陽也, 陰陽一太極也, 太極本無極也, 五行之生也, 各一其性. 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 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 化生萬物. 萬物生生, …….

이처럼 周敦頤에 의하면, 『太極』의 활동은 객관세계의 만물과 현상을 생성하는 데 이바지한다. 『태극』이 靜에서 動으로 되풀이하여 끊임없이 相反되며 변화하는 결과로 兩儀, 즉 음양이 생겨나고, 차례로 결합하여 五行이 생겨난다. 자연현상은 이 兩儀의 상호작용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며, 그 현상들의 탄생은 끝이 없는 것이다. 周敦頤은 그로부터 출발해서 이 현상을 설명하려 했고 어떠한 정신력에도 도움을 호소하지 않았다. 우주적인 음양은 그러한 세력이 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의 존재가 『태극』의 변화상태에 의하여 한정되기 때문이었다. 周敦頤에 있어서 『태극』과 兩儀는 五行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태극』은 태초의 혼돈(無極)에 내재한 기본 물질과 비슷한 것이다.(그러므로 “무극이 태극”이란 말은 “태초의 혼돈이 기본 물질의 상태”로 이해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周敦頤의 세계발전에 관한 개념은 “易經”이란 저술에서 파생되었다. 그러나 이 저술이 제시하는 바 兩儀가 四象을 낳고 사상은 八卦를 낳으며 팔괘는 마지막으로 六十四卦를 생기게 하는데 그 안에 삼라만상과 제현상이 표현된 유형으로부터 일탈된 모습을 볼 수 있다. 周敦頤에게

있어 象, 三線의 卦, 六線의 卦 대신에 오행을 논하는데, 그것은 書經의 “洪範”章에 나오는 사상에 그가 받은 영향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張載는 周敦頤이 개창한 전통을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시켰다. 그러나 그의 자연철학을 『태극』에 기초를 두었던 후자와는 달리, 張載는 氣가 하나의 그리고 유일한 물질적 기초라고 믿었다. 그는 氣가 존재의 기본으로서, 만물이 氣를 이루고 있으며, 세계는 오직 氣만을 지니고 있으며, 氣의 존재의 근원이 그 안에 있다고 본다. “형상이 가능한 모든 것은 존재물이며, 모든 존재하는 사물들은 형상이고, 모든 형상은 氣이다.”

“凡可狀，皆有也；凡有皆象也；凡象，皆氣也。”

張載에 의하면, 氣는 極小로서 존재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사물과 현상을 결합하고 존재케 한다. 氣가 존재함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그로 인함이다. 그는 이렇게 썼다.

“氣가 모일 때 우리 눈에 뚜렷이 볼 수 있게 되어 個物의 形이 있다고 하고 氣가 흩어질 때 뚜렷이 볼 수 없게 되어 형이 없다고 한다.”
“氣聚則離明得施而有形；氣不聚則離明不得施而無形。”

氣의 원초적인 모습에서 그것은 『태극』에서 존재한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태극은 형이 없고 氣의 본체이다.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에서 氣는 변화의 임시 형태를 취한다.”

“화의 임시 형태를 취한다.”
“太極無形，氣之本體，其聚其散，變化之客形爾。”

동시에, “太虛는 氣로 되어 있다. 氣는 모여서 만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만물은 흩어져서 太虛가 되지 않을 수 없다.”

“太虛不能無氣，氣不能不聚而爲萬物，萬物不能不散而爲太虛。”

더욱이 氣가 겪는 변화는 일정한 규칙에 순응하며 사물과 현상의 발생은 정해진 일관성을 고수한다. 비록 氣의 모임과 흩어짐, 충돌과 배격 등은 불가사의한 성격이지만, “이 모든 것은 氣가 그것들을 범하지 않고 따르는 법칙이 있다.” 張載는 말한다.

만 곳에서 이 점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는 이렇게 썼다. “氣의 생성은 그 자체의 ‘先’과 ‘後’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연의 체계가 생기게 된다. ‘小’와 ‘大’, ‘高’와 ‘下’는 서로 결합하여 相을 만든다. 그것이 바로 자연에 존재하는 체계인 것이다. 자연에서의 사물의 생성과 사물에 의한 形의 모습을 취함은 또한 일정한 체계를 따르게 된다.”

“生有先後，所以爲天序，小大，高下相竝而相形焉，是謂天秩，天地生物也有序，物之既形也有秩。”

그리하여 사물과 현상의 생성과정을 설명하면서 張載는 어떠한 非物質도, 의도적인 원칙도 고려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太虛’는 아직 결합되지 않은, 흩어진 氣를 수용하는 장소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원초적 실재”이다. 『太虛』는 원인이 아니라, 물질 분자 운동의 조건이다. 張載는 氣의 운동과 그것의 변형, 자연의 변화가 남녀(음양) 원리의 상반되는 세력의 상호작용 때문인 것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믿었다. “氣는 되는 대로 마구 움직인다. 氣가 합하여 質을 이룬다. 그것이 사물과 사람의 복합성을 생기게 한다. 이 두 가지 극단, 음양은 끝없이 순환하여 천지의 대원리를 확립한다.”

“游氣紛擾，合而成質者，生人物之散殊；其陰陽端；循環不已者，立天地之大義。”

朱熹의 형이상학은 『태극』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그는 그것을 존재의 기본 물질로서가 아니라 최고의 보편원리인 ‘理’로서 이해한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모든 사물마다 다 하나의 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궁극적인 理이다. 천지만물의 理를 총괄하는 것은 바로 태극이다. 태극이라고 하는 까닭은 그것이 理의 최고의 한정된 표현이기 때문이다.”

極是道理之極至. 總天地萬物之理, 便是太極, 太極之義, 政謂理之極至身.

그러므로 朱熹은 『太極』은 자연과 사회의 보편적 원리를 이루고 있으며, 사물과 현상의 理인, 모든 법칙이 그 안에 具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물질계를 초월하고 그 변화를 통제하는 관념적인 원리로서 이해했다. “無極이 太極이라고 한 말은 어떠한 현상 또는 어떠한 사물이 그곳에 빛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당초에 아무 것도 없었고 오직 태극의 그 ‘원리’만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無極而太極, 不是說有個物事光輝地在那裏, 只是說當初皆無一物, 只有此理而已.”

『動靜』이 번갈아 나타나는 바 『태극』의 내재적인 활동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생겨난다. 처음에 음양이 갈라지고, 다음에 五行이 생겨나고, 마지막으로 만물이 생겨난다.

朱熹은 『태극』을 천지만물의 본질로서 해석한다. 그는 말했다. 『태극』은 하나의 단위이다. 음양이 생기면 태극은 그들 안에 있다. 오행이 생기면 그것은 그들 안에 있다. 천지만물이 생기면 그것은 그들 안에 있다. 모든 경우에 오직 하나의 법칙이 있을 뿐이다. 그것이 至高인 것인 한, 그것은 태극으로 알려져 있다. ……태극은 단지 만물을 통제하는 법칙일 뿐이다. 만일 우리가 천지를 택하면, 그 안에 태극이 있다. 반면에 우리가 만물을 택하면, 그 만물 속에 태극이 있다. 천지는 본래 그 모습대로 있지 않다. 최후까지 본래의 모습대로 있는 것은 오직 이 법칙만이 있을 뿐이다.”

“太極非是別爲一物，卽陰陽而在陰陽，卽五行而在五行。卽萬物而在萬物，只是一個理而已，因其極至，故名曰太極……”

朱熹은 『태극』은 모든 인간과 만물의 본질이며 태극이 없이는 그들의 존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태극은 만물을 그 위로 뺏어나가게 하는 뿌리와 비슷하다. 뿌리가 갈라지면 가지와 밑둥이 나타난다. 그리고 또 갈라지면 꽃과 잎이 나온다. 끝없이 생겨나서 마침내 그 결과로 열매를 맺고, 그 안에 또 다시 끊임없는 탄생의 법칙이 작용한다. 탄생의 결과로서 어떤 사물이 생길 때, 이것은 또 다시 한계를 알지 못하는 태극 때문이다.”

“太極如一本生上，分爲枝幹，又分而生花生葉，生生不窮，到得成果子，裏面又有生生無窮之理，生將出去，也是無限個太極。”

그러므로 朱熹은 周敦頤이 존재의 기본물질, 즉 『태극』로서 지녔던 것을 관념적 시초, 즉 물질적 사물 이전에 작용하는, 그들의 존재를 결정하는 공통의 보편적 법칙으로 변형시켰다. 그는 자연과 사회를 이 관념적 시초의 작용으로서 조건지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

朱熹는 氣(“實體”)를 관념(사물과 현상의 세계를 초월한)이 창조하기 위하여 소유한 『최저』의 능력으로, 전체 對 一의 『태극』의 특질로, “실체적인 사물”로 바꾸었다.

朱熹의 숭배자로서 李退溪는 朱熹의 우주론적, 가치론적 특징을 간과할 수 없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의 “聖學十圖”에서 제1도는 『태극』에 바쳐진다. 李退溪는 영원한 관념이 존재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왜냐하면 만약 보편적 기준이 없다면 사회는 존재할 수 없거나, 또는, 다시 말해서, 도덕적 원칙의 상대주의는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최고의 도덕적 기준은 고대의 완전한 통치자들(堯, 舜)에 의하여 우리에게 전하여졌고, 그들의 행적, 업적, 훈계 등에 의하여 기록되었다.

그들의 위대성은 그들이 자연법을 고수했던 데에서 파생된 것인데, 만일 그와 같은 법을 범하면 사회의 대들보가 무너지는 것이다.

李退溪는 사람이 가족, 친구, 국가, 정부와 사회에 의무를 지킴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인격의 자기 가치는 선천적, 후천적 양자의 능력의 개발을 통하여 확보된다.(이와 관련해서 쇼펜하우어가 괴팅겐에서 공부할 때 인간의 최고 가치는 개성, 다시 말해서 자연이 그에게 부여한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그의 육체, 정신, 그가 개발한 능력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상기해보라.)

결국 고대의 성현들이 전달한 최고의 도덕적 이상들은 『태극』과 관련이 있다. 朱熹의 사상을 재해석하면서 李退溪는 『태극』이 자연현상을 형성하는 요인임을 시사하였다. 『태극』의 의도적 역할의 이행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인간이 도덕적 원리의 본질을 인식함, 그가 선악, 당위와 존재간의 근본적 차이점을 이해함과 관련이 있는 한, 『태극』은 마찬가지로 인간의 감성, 정서, 그의 도덕적 특질 등에 영향을 끼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교는 최고의 도덕적 원리로서 인간들 간의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仁”의 범주를 제시한다. 宋代의 철학자들은 이 범주를 보편적·우주론적 범주에까지 올려 놓았다. 그들은 일월성신의 움직임과 오행의 상호작용이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휴머니즘이라고 설명하였다. 仁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과 친척이 되게 했다. 張載가 그것을 표현한 바와 같이 “하늘은 나의 아버지이며 땅은 나의 어머니이고, 만민은 나의 형제이며 만물은 나의 친구이다.”

朱熹를 설명하면서, 李退溪는 그가 仁의 가르침을 창시하고 그 가르침 덕분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옛사람들의 길을 따를 수 있다고 썼다. 仁은 인간들 사이에 주고 받는 사랑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사랑없는 인간성은 존재할 수 없다고 李退溪는 강조한다. 仁은 사회의 개인들간의 관계를 강조하고, 다시 말해서, 가족내에서, 국가기구내에서, 다른 계급과 제도의 전형간의 관계를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오로지 사람이 자기

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키기만 한다면 인간다움이 “널리 군림한다.” 인간다움은 책임과 의무 이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군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무적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의무”의 개념에서 표현된 바와 같은 어떤 강제적 규범들은 옛날의 성군들과 儒敎 고전의 권위에 의하여 쌓여진 풍부한 경험에 의하여 다시 신성시되었다. 하지만 “의무”에 관해 말하면서, 李退溪는 그것을 지배적인 원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가 “利”의 개념으로 전달한 인간의 자연적 욕구와 상반되어서는 안된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의무”와 “이익”은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利者, 義之和.

李退溪는 당연하게도 이익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의 행복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뜻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의 가르침에 반영된 것은 유교의 특징적인 문제점으로서, 公益과 私益, 의무와 私慾 사이의 관계가 유교에는 있다는 점 뿐만이 아니다. 李退溪의 대답은 전통적인 것으로서 이익이 오로지 개인의 인간적 욕망으로서만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如云循天理, 則不求利而自無不利者是也, 若化利名人欲, 則天理中毫著不得, 何尊之和耶.

영향의 주제에 관해서는 중국 철학적 전통이 李退溪의 가르침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나는 다시 한번 다른 국적의 사람들 이외의 단일 동일 지역내에서 대다수 거주민들의 문화적 공통점을 주목하고 싶다. 현대의 역사는 이 발전의 길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차이점을 찾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생산적임을 시사한다.

(유철준 譯)